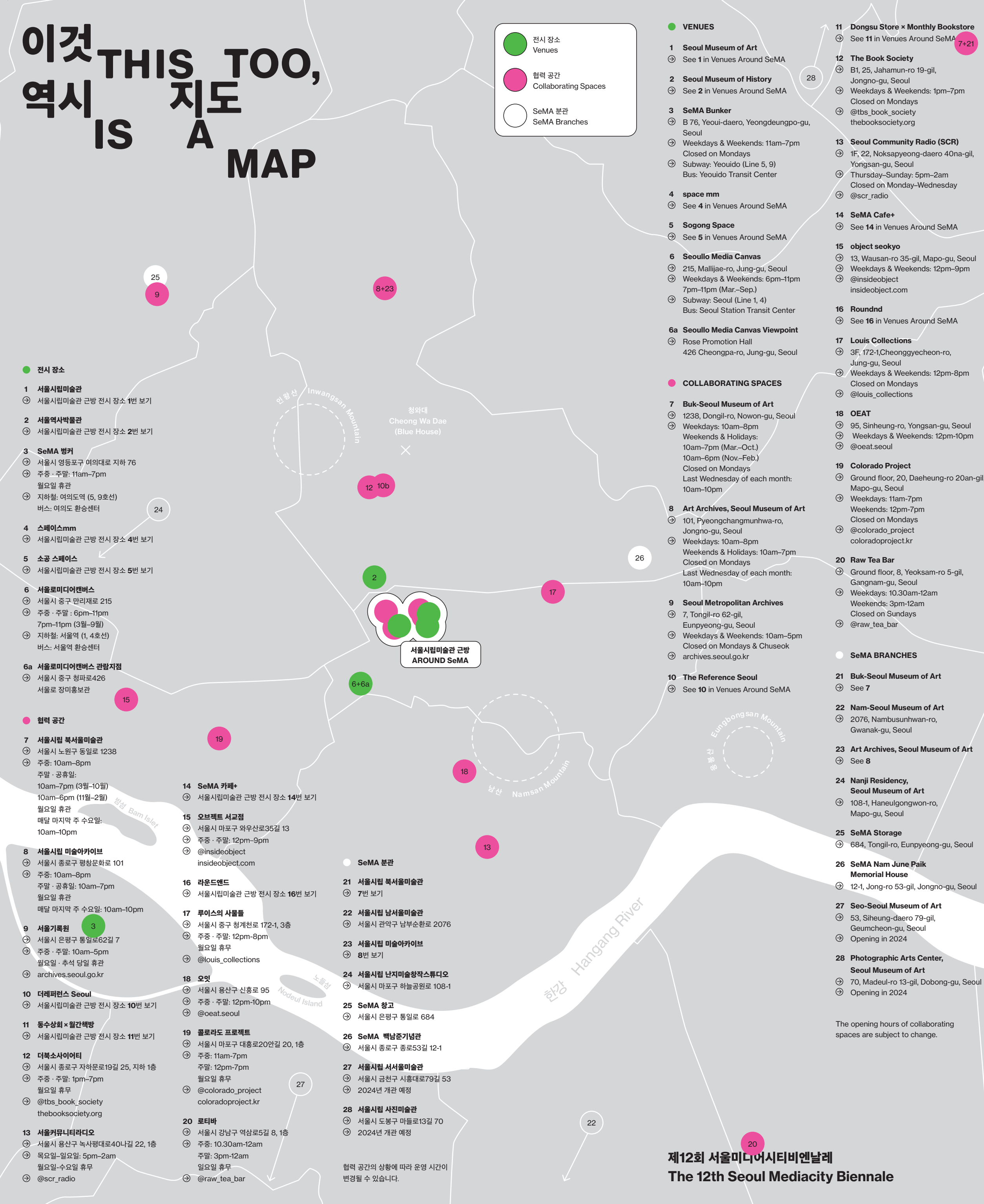


이것  
역시

THIS TOO,  
IS A

지도  
MAP



서울시립미술관 근방

- ① **서울시립미술관**  
 ②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③ 주중: 10am-8pm  
 주말 · 공휴일:  
 10am-7pm (3월-10월)  
 10am-6pm (11월-2월)  
 월요일 휴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0am-10pm  
 ④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⑤ @seoulmuseumofart  
 sema.seoul.go.kr

2 **서울역사박물관**  
 ①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② 주중 · 주말: 9am-6pm  
 월요일 휴관  
 ③ 지하철: 광화문역 (5호선)  
 ④ @seoulhistorymuseum  
 museum.seoul.go.kr

4 **스페이스mm**  
 ①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 시티스타몰  
 세텍 4-2호  
 ② 주중 · 주말: 12pm-6pm  
 월요일 휴관  
 ③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버스: 서울광장  
 ④ @space\_mm  
 spacemm.net

5 **소공 스페이스**  
 ①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2 소공지하상가 6-1  
 ② 주중 · 주말 12pm-6pm  
 월요일 휴관  
 ③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버스: 서소문, 덕수궁  
 ④ @sogongspace

10 **더퍼먼스 Seoul**  
 10a **더퍼먼스 SeMA**  
 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10b **더퍼먼스 Seoul**  
 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44  
 ② 주중 · 주말 11am-7pm  
 월요일 휴무  
 ③ @the\_reference\_seoul  
 the-re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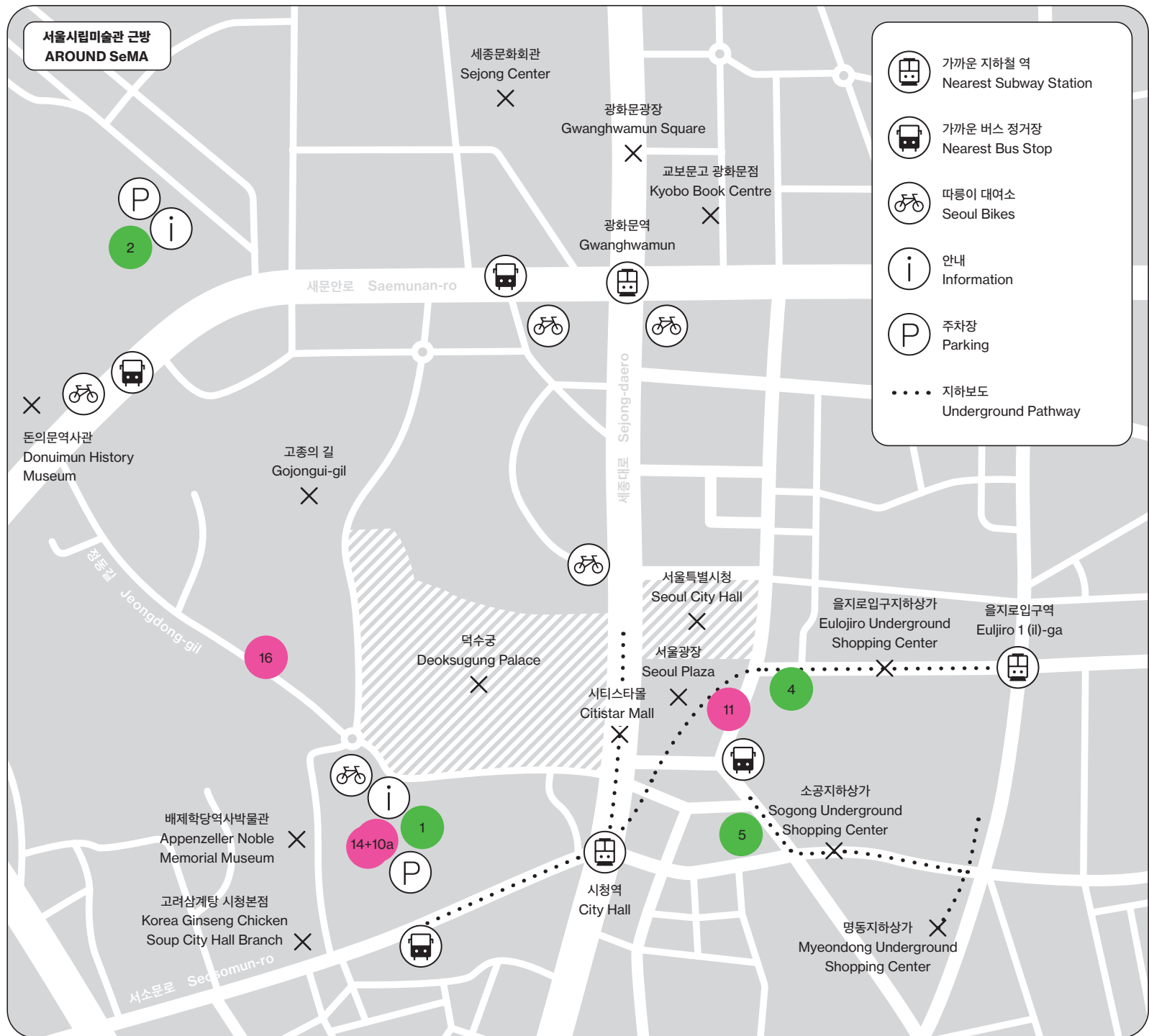
11 **동수상회 × 월간책방**  
 ①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 시티스타몰  
 세텍 4-2호  
 ② 주중: 1pm-7pm  
 주말 · 공휴일 휴무  
 ③ @dongsustore

14 **SeMA 카페+**  
 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② 주중 · 주말: 11:30am-6pm  
 월요일 휴무

16 **라운드엔드**  
 ① 서울시 중구 정동길 35  
 ② 주중 · 주말: 8am-10pm  
 ③ @roundnd.jeongdong

## AROUND SeMA

- 1 Seoul Museum of Art**  
 ㉔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Weekdays: 10am-8pm  
 Weekends & Holidays:  
 10am-7pm (Mar.-Oct.)  
 10am-6pm (Nov.-Feb.)  
 Closed on Mondays  
 Last Wednesday of each month:  
 10am-10pm  
 ㉔ Subway: City Hall (Line 1, 2)  
 ㉔ @seoulmuseumofart  
 sema.seoul.go.kr
- 2 Seoul Museum of History**  
 ㉔ 55, Saemunan-ro, Jongno-gu, Seoul  
 Weekdays & Weekends: 9am-6pm  
 Closed on Mondays  
 ㉔ Subway: Gwanghwamun (Line 5)  
 ㉔ @seoulhistorymuseum  
 museum.seoul.go.kr
- 4 space mm**  
 ㉔ Sae-teuk 4-1ho, Citistar Mall, 12, Euljiro, Jung-gu, Seoul  
 ㉔ Weekdays & Weekends: 12pm-6pm  
 Closed on Mondays  
 ㉔ Subway: City Hall (Line 1, 2)  
 Bus: Seoul Square  
 ㉔ @space\_mm  
 spacemm.net
- 5 Sogong Space**  
 ㉔ 6-1, Sogong Underground Shopping Center, 102, Sogong-ro, Jung-gu, Seoul  
 Weekdays & Weekends: 12pm-6pm  
 Closed on Mondays  
 ㉔ Subway: City Hall (Line 1, 2)  
 Bus: Seosomun, Deoksugung  
 ㉔ @sogongspace
- 10 The Reference Seoul**  
**10a The Reference SeMA**  
 ㉔ 3F,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10b The Reference Seoul**  
 ㉔ 44 Jahamun-ro 24-gil, Jongno-gu, Seoul  
 ㉔ Weekdays & Weekends 11am-7pm  
 Closed on Mondays  
 ㉔ @the\_reference\_seoul  
 the-ref.kr
- 11 Dongsu Store x Monthly Bookstore**  
 ㉔ Sae-teuk 4-2ho, Citistar Mall, 12, Euljiro, Jung-gu, Seoul  
 ㉔ Weekdays: 1pm-7pm  
 Closed on Weekends & Public Holidays  
 ㉔ @dongsustore
- 14. SeMA Cafe+**  
 ㉔ Ground floor,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㉔ Weekdays & Weekends: 11:30am-6pm  
 Closed on Mondays
- 16 Roundnd**  
 ㉔ 35, Jeongdong-gil, Jung-gu, Seoul  
 ㉔ Weekdays & Weekends: 8am-10pm  
 ㉔ @roundnd.jeongdong





2023년 9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는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서울 도심의 여러 전시 장소에서 펼쳐집니다. 비영토적 지도 그리기를 상상하며 전개되는 이번 비엔날레는 경계 밖의 삶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대안적 사유와 공동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감각을 나누기 위해 비엔날레는 추상적이며 잘 드러나지 않는, 의도된 모호함의 언어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국제 관계의 맥락, 도시와 국가 안팎에서 자의든 타의든 여러 번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동과 움직임을 이해하는 경로를 만듭니다. SMB12는 초국가적인 결속, 보이지 않는 현신, 코드화된 방식의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예술적-정치적 커뮤니케이션 등 국경을 넘어 생성되었거나 때로는 강요되기도 하는 여러 시스템을 살펴볼 것입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 서울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세 차례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습니다.

전시 장소

《이것 역시 지도》는 기존의 비엔날레 네트워크를 돌보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서울의 여러 전시 장소와 협력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각각의 장소와 공간에서 비엔날레는 서울의 특정 문화 지형과 공간적 특질, 그리고 비엔날레의 주제 의식과 공명하는 작품과 개념을 소개합니다. 비엔날레 전시 장소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층, 근교의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서울로미디어캔버스를 비롯하여, 도시 전반에 펼쳐진 지하 공간을 주목, 여의도의 SeMA 병커와 미술관 근방의 지하상가에 위치한 스페이스mm 과 소공 스페이스까지 여섯 개 장소를 아우릅니다. 협력 공간 열네 곳에서는 열서, 소식지, 지도, 안내 책자와 프로그램을 유통하고 공유하여, 비엔날레와 도시를 함께 탐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의 주요 전시와 행사가 개최되는 거점입니다. 총 33명/팀의 작가들 소개하는 서소문 전시장에서는 대안적 지도 그리기, 추상성과 정체성, 변위와 이주의 경로 탐색, 사이버네틱스와 광물, 과거와의 소통 등을 다루는 작품을 통해 지리적인 경계를 벗어난 '지도 그리기'의 미학을 제시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3 원주민과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언어, 번역, 역사학을 탐구하는 제시 천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SeMA 병커에서는 자원 추출의 역사를 가로질러 인간, 기술, 광물의 이동과 관계에 관하여 탐구하는 로-데프 필름팩토리(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루이스 윌슨), 사샤 리트빈체바&그레임 안필드, 펠커 헤라호라번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역 주변을 연결하는 지하도에는 미술 공간 스페이스mm 과 소공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공 영역과 사적인 공간, 그리고 일상 속 가상과 실제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는 전현선과 왕보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서울의 고가 보행로인 서울로7017과 만리동 광장에서 조망이 가능한 대형 도심 전광판입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나타샤 톤테이, 라야 마틴, 유어 컴파니 네임(콜라라 발라구예르, 샌지조 멘규지)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Entitled *THIS TOO, IS A MAP*,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SMB12) opens to the public at Seoul Museum of Art and several other venues across the city of Seoul from 21 September to 19 November 2023. Developed to imagine the global aesthetics of the non-territorial, the project focuses on alternative concepts of mediating and relating that live outside of borders. It looks to the necessity of abstractions and hidden and deliberately obscured languages to communicate shared existence. The project refers to the global relations that take place within Seoul and its industrial surroundings, and the positions and references of those willingly and unwillingly displaced, often multiple times over, whether within or outside of the city and state. The Biennale looks at systems imposed or created in spite of territorial borders, including transnational solidarities, "underground" extractions and commitments, the coded mapping of data and infrastructure, as well as those of artistic and political communication.

SEOUL MEDIACITY BIENNALE

Since its inauguration in 2000 as an initiativ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ediacity Biennale* has ear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its experimental engagement with contemporaneity and the changes of media in the city. The Biennale has shared conceptual experiences on media from its precursor exhibition *SEOUL in MEDIA*, which was held three times between 1996 and 1999. Since then, the Biennale has presented eleven editions, each embodying varying ideas and activities that resonate with its respective time.

VENUES

Honoring the Seoul Mediacity Biennale's tradition of creating new and different networks, *THIS TOO, IS A MAP* spreads across several venues throughout Seoul. Each holds objects and concepts that respond to the Biennale as well as its own lo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SMB12 takes place at SeMA's main branch, Seosomun, and at the neighboring Seoul Museum of History, as well as the outdoor Seoulo Media Canvas, and in a series of underground spaces dispersed around the city including SeMA's Yeouido Bunker, and spaces mm and Sogong—which are situated in an underground shopping center. Along with these spaces are a series of collaborating venues that share programs, postcards, newsletters, guidebooks, and maps that offer an opportunity to navigate the Biennale and the city, mediated by the experiences of alternative and counter-territorial practices. The largest manifestation of SMB12's exhibition and programs takes place at SeMA's Seosomun Main Branch. Featuring 33 artists, each gallery explores different approaches to non-territorial aesthetics, including artworks that engage alternative maps, and challenge and abstract history and identity, re-present displacement and migration paths, and communicate through cybernetic and indigenous positions.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협력 공간은 비엔날레의 오랜 협력자와 새롭게 맺은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문화 공간, 서점, 카페, 공공 공간 등을 아우르는 비엔날레 협력 공간은 비엔날레의 생각, 출판물과 굿즈를 전파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비엔날레 협력 공간에서는 작가, 필자, 참여자, 비엔날레 팀과 미술관 관계자가 열서 생산자로 참여한 '열서'를 비롯하여 안내 책자, 소식지 그리고 지도를 배포합니다. 이와 같은 비엔날레의 인쇄물은 모두 비영토적 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수집하는 12회 비엔날레의 개념적이며 물질적인 지도로 작동합니다. 나아가 이번 비엔날레는 서울커뮤니티라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국경과 정치적 영토의 경계 너머로 전파되는 소리와 음악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펼쳐진 협력 공간은 도시에 잠재한 다양한 공간과 일상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공동의 지도를 그릴 것입니다.

SeMA 본관

서울시립미술관은 모두가 만나고 경험하는 미술관을 모토로 서울의 지역 공동체와 상상하고 특화된 기능으로 예술을 매개하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 병커, SeMA 창고, SeMA 백남준기념관, 8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과 서서울시립미술관까지 10개관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At Seoul Museum of History SMB12 presents several works by artist Jesse Chun that showcase her focus on language, translation, and historiography from native and diasporic perspectives. The works on view at SeMA Bunker by Femke Herregraven, 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and 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investigate the links between human, technological, and mineral displacement, through histories of extraction. In the underground passageways connecting the City Hall and Euljiro stations of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are space mm and Sogong Space, where SMB12 showcases artworks by Hyunsun Jeon and Bo Wang, who engage with tensions that emerge from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between virtual and real territories of everyday life. Seoulo Media Canvas is a media screen that is visible from Seoul's elevated pedestrian walkway *Seoulo 7017* and Malli-dong Square where every evening SMB12 presents a brief program of works by artists Natasha Tontey, Raya Martin, and YOUR COMPANY NAME (Clara Balaguer and Cengiz Mengüç).

Comprising long-standing friends of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as well as newly added-members of its expanded community, collaborating spaces include cultural spaces, book stores, cafes, and public spaces that disseminate ideas and ephemera related to SMB12. Each space distributes selections of postcards, which showcase original contributions from participating artists, writers, Biennale team members, and SeMA staff, as well as guidebooks, newsletters, and maps. As a set, these printed materials express various interpretations of non-territorial aesthetics and collectively operate as a conceptual and material map of the Biennale. In collaboration with Seoul Community Radio, SMB12 also activates the air waves, exploring the potential of sound and music to move beyond borders and transcend the politics of territorialization. As such, collaborating spaces compose a fragmented collective mapping of the city and manifest the different forms of spatial social life that arise therein.

SeMA BRANCHES

SeMA consists of a network of museum spaces including SeMA Seosomun Main Branch, Buk-SeMA, Nam-SeMA, Art Archives, Nanji Residency, SeMA Bunker, SeMA Storage, and SeMA Nam June Paik Memorial House. We host a variety of programs for diverse audiences that utilize cultural and historical references and resources and develop new cultural frameworks. By 2024, upon the opening of Seo-SeMA and the Seoul Photographic Art Museum, SeMA will have ten distinct and interconnected spaces.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과 비엔날레를 다르게 읽고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제안합니다.

- 지상 SMB12
- 첫 번째 경로는 서울의 구조와 경계를 경유하여 비엔날레의 전시 장소 세 곳과 협력 공간 두 곳을 아우릅니다. 도시의 역사로만 남아있는 서소문과 돈의문을 지나 서울로까지 이동하며 서울의 문화 지리를 새롭게 읽어봅니다.
- 지하 SMB12
- 두 번째 경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주변의 지하상가에 위치한 전시장에서 출발하여 1945년 해방 이후 이주민들의 임시거주처가 되었던 해방촌을 거쳐 여의도의 SeMA 병커까지 아우릅니다. 사이사이 숨티가 되는 협력 공간도 방문하며, 역동적인 서울의 문화 지형을 읽을 수 있습니다.
- SMB12를 매개하기
- 세 번째 경로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가상의 경험을 제안합니다. 비엔날레 소식지, 열서, 안내 책자, 도록, 그리고 웹사이트 등 다양한 출판물에 담긴 문자와 이미지를 순회하며 이번 비엔날레의 미학과 개념의 세계를 경유해 봅니다.

각각의 경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비엔날레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하 SMB12  
UNDERGROUND SMB12

- 스페이스mm  
space mm
- 동수상회 × 월간책방  
Dongsu Store × Monthly Bookstore
- 소공 스페이스  
Sogong Space
- 해방촌  
Haebangchon
- 오잇  
OEAT
- 서울커뮤니티라디오  
Seoul Community Radio
- 콜로라도 프로젝트  
Colorado Project
- SeMA 병커  
SeMA Bunker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suggests other ways to read and experience Seoul and the Biennale throughout three sequences.

- GROUND LEVEL SMB12
- The first sequence encompasses three of the Biennale's venues and two collaborating spaces. Here, visitors are encouraged to evaluate contemporary cultural cartography through historical sites such as Seosomun and Donuimun, with Seoulo as a connective through-line.
- UNDERGROUND SMB12
- The second sequence departs from the venues located within the underground shopping center near SeMA Seosomun before passing through Haebangchon, a former temporary village for migrants that took shape in the years following Korea's liberation in 1945, and finally arrives at SeMA Bunker in Yeouido.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to visit several collaborating spaces of this edition and facilitates new readings of the dynamics of Seoul's topography.
- MEDIATED SMB12
- The third sequence proposes a virtual experience rather than physical movement. Without any clearly delineated paths, visitors may wander among the texts and images of SMB12 publications including the Newsletter, Postcards, Guidebook, Anthology, and Website as they navigate the aesthetics and ideas of the Biennale.
- You can find further information on each sequence through SMB12 website and social media.

지상 SMB12  
GROUND LEVEL SMB12

-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 더레퍼런스 SeMA  
The Reference SeMA
- 라운드앤드  
Roundnd
- 정동길  
Jeongdong-gil
-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 돈의문역사관  
Donuimun History Museum
- 서울로미디어캔버스  
Seoulo Media Canvas



2023.09.21  
— 11.19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이것 역시  
THIS TOO,  
IS A 지도  
MAP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The 12th Seoul Mediacity Biennale

전시 해설  
도슨트 해설  
전시 도슨트와 해설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비엔날레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해설  
예술 웹사이트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트" 앱을 다운로드하신 뒤 음성 해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HIBITION GUIDE  
Docent Tours  
Guided tours will take place at SeMA Seosomun. The service is available in Korean only.  
Audio Guide  
Please download the SeMA Docenting application for smart devices from the App Store or Google Play Store for free and use the audio guide service.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seoulmediacitybiennale  
mediacityseoul  
mediacityseoul  
Seoul Mediacity Biennale  
서울시립미술관 기업 후원  
SAMA COOPERATION SUPPORTS  
서울로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Seoul Mediacity Biennale  
Seoul Museum of Art  
61, Deoksungung-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이니컴그룹  
HERMES PARIS  
한화생명